

느끼고, 느껴서, 느껴라!

글_ 조주희(대광고등학교 교사)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풍부한 독서를 바탕으로 한 주제적 사유와 개성있는 글쓰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판저널>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독서문화를 창출하고, 논술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호부터 명망있는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논술의 창'을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편집자 주>



단어 '마지막'이 있다.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끝, 결론, 종결' 등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허나 뜻밖이다. 원래 '마지막'은 관 뚜껑의 순수 우리말이란다. '마지'가 나무 종류요, '막'이 뚜껑을 지칭한단다. '가로 막다'의 막도 그런 의미라니, 새로울 따름이다.

산자가 망자를 볼 수 있는 마지막이자, 망자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결국 세상과 하직하는 가장 끝의 모습에서 '마지막'의 의미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게 보니 '마지막'이란 단어에서 애잔한 슬픔이 묻어 나온다.

'느끼는 것의 표현', 논술...일기 쓰기도 좋은 방법

인간은 느낀다. 배고프다고 느끼고, 아프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고, 병원을 찾아간다. 어찌 보면 느끼는 건 우리의 생존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본능이 학교에서는 간혹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는 어떨 때 가장 기쁘니?" "몰라요."

"너 왜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요."

거북이 껍질처럼 감정이 딱딱해진 아이들. 이런 상담이 가장 곤란하다. 흥미로운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딱히 나쁠 것도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오감을 열어주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고도 어렵다.

"일기를 써 보자. 자신의 하루를 적어도 좋고, 독서 감상문을 적어도 좋고, 시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도 좋아. 내일부터 써오자."

그렇게 학급 전원이 일기를 시작했다. 붓물 터지듯 쏟아붓는 아이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글을 쥐어짜다. "재밌었다" "즐거웠다"가 감정의 대부분인 아이들. 정욱이 일기도 처음엔 그러하였다.

● 3월 10일

오늘 수업받고 축구공으로 농구하고 수업받고 집에 간다.

사건은 많은데 단 한 줄이다. 하도 짧아, 시도 아닌데 운 울마저 느껴진다. 수업 시간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가, 축구공으로 농구하니 에피소드도 있었을 법하건만 냉랭하다. 살아 있는 느낌이 없다. 무미건조하다.

이런 상황이니 논술은 아이들에겐 짐이 된다. 논술 비중은 점점 높아진다는데,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준비는 해야겠고... 갈팡질팡한다. 논술 대비를 하고자 참고 서적을 읽어보지만 많은 조건에 '혹 떼러 들어갔다 혹 붙이고 나오느' 심정이다. 글을 쓰고자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이런 아이들에게 황우석 논문 파동, MBC 방송국의 방송 윤리 문제 등을 가지고 글 짓기를 하라고 해보자. 길이만 길 뿐이지 사건 나열에 그칠 뿐이다.

결국 문제는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느끼지 못하면, 글은 사건 나열로 끝날 뿐이다. "아니 논술은 문학 장르가 아닌데, 느끼는 게 왜 필요한가요?"라는 아이들의 질문도 있었다. 허나 논술은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글'이다. 독도 문제나, 생명 윤리에 대한 논제들도 결국은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의 다른 문장일 뿐이다. 근거를 찾아 반박하거나, 찬성하거나 자신의 느낌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다.

여하튼 지난 1년간 아이들은 그렇게 글을 썼고, 늘어나는 글 솜씨에 재미를 붙였다. 정말이냐고 의심한다면, 앞서 단 한 줄로 하루를 표현했던 정욱이의 일기를 다시 보자. 동의를 얻어 하루 일기를 옮겨본다.

● 11월 5일

"오늘은 정말 피곤한 하루였다. 아이들과 농구하러 갔다. 농구하다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 애는 공부를 안 했지만 날라리는 아니었다. 운동만 하는 애였다. 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애가 불쌍했

다, 아버지가 건달이라고 한다!! 참, 아버지가 무슨 사고를 쳐서 감방(교도소)에 갔다고 했다. 불쌍하다. 며칠 동안이나... 더 심한 건 아빠가 회 장사를 했는데 지금 고1 나이에 회를 찐다고 한다. 그 친구 손에 빈 자국이 있는데 너무 징그러웠다. 너무 불쌍하다. 중학교 때 힘이 엄청 썩었다. 중학교 때 아마 제일 썩은 것이다. 어이 없는 게 나랑 오랜만에 팔씨름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해 봤는데 그냥 (내가) 졌다. 역시 개 별명이 돌쇠였다. 똑같다. 참 세상은 험한 것 같다. 내가 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나. 저런 친구와 비교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8개월 뒤의 글은 비록 군데군데 비문이 섞여 있긴 하지만, 자신의 느낌에 솔직해졌다. 3월이나 11월 양쪽 모두에서 농구가 등장하나 내용은 판이하다. 충격적인 친구의 일상과 인상 깊었던 친구의 손을 묘사한 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니 훨씬 감동이 느껴진다. 이제 정육이는 노트 한 바다쯤은 쉽게 채울 수 있다. 뿐인가. 검사하지 않아도 혼자서 일기를 꼬박꼬박 채워 나간다. 단지 8개월간 느껴지는 아무거나 써봤을 뿐인데, 쓰는 일이 만만해졌고, 재밌어졌다. 이젠 정육인 자신의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책을 통한 '오감' 열기, '익숙한 것, 새롭게 보는 눈'

우리에겐 다섯 개의 감각이 있다. 다들 아는 것이지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그것이다. 글을 쓸 땐 여기에 '육감'이라는 감각도 열어야 한다. 민감해야 한다. 현대 많은 아이들은 이 문이 단단히 닫혀 있다.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저학년의 학생들은 감각을 여는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딱딱하고 3장 이상 넘기기 힘든 책은 과감히 닫아도 좋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색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고2부터는 딱딱해도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책을 읽는 것이 좋다. 아래 나열된 책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혹은 문장이 좋아서 뽑은 책들이다. 군데군데 뽑아서 읽어도 재밌을 것이다.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다. 때문에 감정의 문을 항상 열어둬야 세상의 일들이 들어온다. 문을 연 세상의 사물은 색다르다. 익숙한 단어도 색다르고, 익숙한 생활도 낯설게 느껴진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자, 두툼한 거북이 등껍질로 무장한 아이들아.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 보자. 바로 그것이 글쓰기의 시작이다. 문을 열고 감정을 느끼면, 그때 우리는 '마지막'에서도 시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오감을 여는 데 필요한 책들



《동물원에서 사라진 철학자》
로베르 마조리 지음 | 최애리 옮김 | 마티 |
174쪽 | 값 8,800원 (난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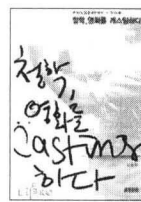
프랑스의 철학교수이자 저널리스트인 로베르 마조리의 유쾌한 철학사 이야기. 개 거북이 코끼리 등의 동물을 대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철학자들의 진면목을 살펴보는 글이다. 전기기오리와 소크라테스, 파스칼과 옴벌레 등 철학자와 동물을 짝지워놓고 재치 있는 어조로 이들을 대비시켜 보고 있다. 때로는 그들의 철학적 태도를 비웃고, 때로는 냉철하게 비판하고, 때로는 숨겨진 면면들을 파헤치면서 다양한 철학적 개념들을 추출해 보는 책.



《재미나는 우리말 도사리》
장승욱 지음 | 하늘언못 | 528쪽 | 값 15,000원
(난이도 ★★★☆☆)

조선일보, SBS 등의 매체에서 기자로 활약했던 장승욱 씨의 순수 우

리말에 관한 산문집. 저자는 다섯 해 넘게 이른 새벽 과수원에 나가 도사리를 줍는 심정으로 순우리말 4,793개의 어휘를 모았다고 밝히고 있다. 제목으로 쓰인 '도사리'는 익는 도중에 바람이나 병 때문에 떨어진 열매, 또는 못자리에 난 어린 잡풀을 가리키는 순 우리말. 도사리를 비롯 사라져가는 우리말의 본뜻과 속뜻, 그것들의 올바른 쓰임을 소개하는 책이다.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이왕주 지음 | 효형출판사 | 362쪽 | 값 13,000원
(난이도 ★★★☆☆)

철학으로 영화를 보고, 영화로 철학을 접하는 길을 제시하는 책. <빌리 엘리어트>의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춤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보면서 하이데거의 '있음'과 '있는 것'의 의미를 찾고, <친절한 금자씨>에 등장하는 다양한 얼굴 개념을 놓고 들뢰즈의 '기계 되기'의 의미를 발견해 본다. 존재론, 인식론, 윤리론, 행복론 등 다양한 철학이론에까지 손을 뻗어보는 영화론이다. 영화를 보지 않은 독자들도 내용을 상상하며 저자의 사고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친절한 설명으로 논지를 전개시키고 있다.